

지금이 위기라는데 더 좋은 기회일 수도 있지

선지식을
찾아서
철정

덕송총림 수덕사 방장 추대된 설정 스님

해발 495.2m의 크지는 않지만 위엄이 있는 덕송산 정상 부근에 자리잡은 수덕사 산내 암자 정혜사 능인선원. 사하촌과 주변의 들이 한 눈에 들어오는 이 곳은 100여년 전 만공 선사(萬公)가 금선대(金仙臺)라는 초가를 지으며 비롯됐다. 근대 한국 선종의 중흥 조인 경허·만공 선사와 선농일여(禪農一如)의 선택을 잇는 이 곳에는 최근 해암·벽초·원담 스님에 이어 덕송총림 수덕사의 제4대 방장에 추대된 설정 스님이 주석하고 있다.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정혜사로 올라가는 산길은 쏟아지는 봄비에 그리 편치는 않았다. 하지만 선원 객실에 들어서니 빗줄기는 아름다운 선을 처럼 정겹고 운무에 가려진 산 아래 경치는 산수화를 그려놓은듯 아름답다. 산색을 연두빛으로 물들인 나뭇잎들은 봄비를 맞고 더욱 푸르러질 기세다.

객실에 들어서선 설정 스님은 환하게 웃으며 차부터 권한다. 서울에서 빗길을 뚫고 달려온 나그네의 어수선한 마음을 다량으로 가라앉히고, 먼저 부처님오신날을 맞은 불자들에게 들려줄 덕담을 청했다.

“부처님오신날은 부처님이 살아가셨던 발자취를 다시 한 번 되새겨보고 서로에게 다짐하는 날입니다. 신앙인으로서의 자신의 위치는 어떠한가, 제대로 정진하고 있는가 반성해 보고 다시 마음을 추스르고 수행인으로서의 새로운 원력을 세우는 때입니다.”

“국내외의 경제적인 위기로 사람들의 삶이 그만큼 고단해진 것 같습니다.”

“세상이 상당히 어려워졌고 불교계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현실적인 면에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조선왕조 500년 동안 질곡의 세월을 보냈고 일제 36년간 왜정에 의해서 불교가 원래의 모습을 잃으며 크나 큰 시련을 겪었고 해방 후에는 정화운동으로 갈등과 시비가 일었습니다. 불교가 스스로 서지 못하고 발전에 저해 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불교의 정화를 달성했습니다만, 그 반면 많은 부작용이 있었고 그 부작용이 지금도 조금씩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염려됩니다. 그러나 위기는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잘 절망하지 않고 부단한 인내로 노력할 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위기가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는 스님의 말씀은 요즘처럼 편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믿고 받아들이지 못해 더욱 열심히 살아가는 힘과 용기가 되는 희망의 메시지를 아닐 수 없다. 이는 무려 54년의 출가생활을 통해 이판(理判)과 사판(事判)의 수행현장에서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며 이사무애(理事無礙)한 지도자의

길을 걸어온 경험에서 물어나온 말이기도 하다. 지난 4월 2일 산중총회에서 방장에 추대된 것도 오랜 출가생활의 큰 이정표가 아닐 수 없다. 스님은 추대를 수락하며 “방장이 아니라 방장 행자로서, 정진하는 사람으로 또 대중과 산중을 위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겠다”며 “함께 타마하자”고 말한 바 있다. 아직 조계종 중앙총회의 추대 절차가 남아있지만, 스님께 방장 추대에 대한 소감을 물었다.

“큰 돌덩어리를 짊어지듯 무한한 책임과 의무, 사명감을 느낍니다. 덕송산은 근대 불교사에서 선종을 중흥했던 곳이고 경허 만공 수월 해월 한암 해암 벽초 스님 등 수많은 선사들을 배출한 곳입니다. 제가 방장수락사에서 ‘방장행자로 살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옛 스님들의 말씀입니다.”

5대 총림 가운데 한 곳이자 선의 종가집의 어른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승려 각자가 승관(僧觀)이 확립돼야 합니다. 철저한 신심과 원력, 공심, 양심과 인격이 갖춰진 사람들로 승단이 구성될 때 비로소 불교의 앞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집단만이 민중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이지, 어떤 속물 근성을 가진, 명리를 추구하는 그런 자들에 의해서는 승단이 바로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스님에 따르면 신심, 원력, 공심은 숲의 세 밭과 같아서 하나라도 무너지면 끝장이다. 불조(佛祖)의 가르침에 대한 정견과 확고한 신심, 나로 깨닫고 중생도 제도하겠다는 보살심과 원력, 나를 버리고 모두를 위해 살겠다는 공심(公心)이 있어야만 참된 출가생활이란 게 스님의 지론이다. 그러나 “요즘 스님들은 풍요로운 세상에서 자라나 물질의 소중함을 잘 모르다 보니 인내력과 같은 정신자세가 나약하고 인과에 대한 믿음도 약한 편”이어서 스님의 걱정이 적지 않다.

설정 스님은 스님들이 바른 승관을 갖기 위해서는 수덕사의 가풍처럼 농사를 지으며 자급자족하는 정

신심·원력·공심 지키면 언제나 당당한 수행자 승단 자립 풍토 절실... 시춧돈·지원금 의지 안돼

된다 것은 결코 가볍지 않은 일이다. 그런데 스님의 어깨가 무겁다는 말은 한 총림을 초월해 조계종 전체를 염려하는 뜻을 담고 있었다. 한 마디로 ‘오늘의 한국불교는 위기’라는 것이 스님의 진단이다.

“한국불교는 머리는 큰 데 가슴과 팔 다리는 허약합니다. 말로는 수미산을 깨부술 듯 하지만 실제의 행이 거기에 미치지 못합니다. 대중을 지향하면서도 소승보다도 실천이 부족합니다. 언행일치와 지행합일, 실질 수행이 필요한 것이지만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21세기 민중의 지도자가 되고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더 철저히 수행해야 합니다.”

한국불교의 현실에 대한 설정 스님의 진단은 냉정했고 그 해법은 단호했다. 수행인이 아닌 생활인이 되어버린 승단에서는 더 이상 불교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불교계에 시비와 난장판이 주기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님들은 생활인으로서 절에 살아선 안됩니다. 수행인으로 살아야지 생활인으로 살다보니까 물질적인 것만 추구하고 그것에 급급하다 보니까 자각색의 추분과 비리와 주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자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한다. “스님들이 내성을 기르고 자주력을 길러야 국가의 보조금으로, 신자의 돈으로 사는 것은 안됩니다. 수덕사에서는 가능하다면 하나씩 해 나갈 것입니다. 일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실의와 좌절을 느낄 수 없습니다.”

설정 스님은 “절에서 채소 등 먹거리를 직접 키우는 것은 잡념을 버리는 수행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한다. 시춧돈의 지중함을 느끼고 정신과 육체의 건강을 유지할 수도 있다. 힘든 일 하는 신도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지게, 먹고 쓰고 입는 모든 것에 여러 사람의 피와 땀이 들어있음을 절감하게 된다는 것.

사실,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고 하는 선농일치(禪農一致), 노선(勞禪)일치의 가풍은 간화선의 전통이기도 하다. 일상매를 통한 몸입이 가능하다면, 구지 좌복위에만 앉아 있을 필요가 없다. 율력하면서 선문답을 즐겨한 마조, 백장, 황벽, 입제 선사와 같은 조사들은 행주좌와와 어묵동정 중에 화두를 들고 공부할 수 있음을 어록을 통해 남기고 있다.



위기의 한국 불교,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승관의 확립 외에 또 하나의 방법은 총무행정을 통한 제도적·행정적 개혁이 있다. 덕송문중 스님들을 비롯해 종단 전체의 광범위한 지지와 존경을 받아온 설정 스님이 총무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여론도 이 때문에 나왔다. 지난해 말부터 차기 총무원장 후보로 하마평에 오른 사실과 관련, 설정 스님은 “전혀 출마의향이 없다”며 솔직담백한 생각을 풀어놓았다.

“작년 금년 초까지 많은 분들이 총무원장 선거에 나서라고 권유했습니다. 그래서 농담조로 제가 이야

기했습니다. ‘10년이고 15년이고 승단을 모두 내게 맡겨라. 그러면 생각해보겠다.’ 라고요. (웃음) 방장 문제도 이렇게 결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만 지푸말이 많아집니다. ‘아무개라는 사람이 영순위다. 어디 다니면서 (총무원장) 선거운동을 조금씩 하고 있다. 안 나온다고는 하지만 언제 나올지 모른다’ 이런 소리가 들리고 해서 우선 이런 생각만이라도 풀어주어야겠다고 생각해 방장 추대를 수락했습니다. 아시다시피 5년 동안 서울 총무원에 있었습니다. 94-99년 제11대 중앙총회 의장, 중앙총회의원 역임) 그때는 원장을 하려고도 생각했습니다. 원장을 해서 내

“드디어 기다리시던 **하권이** 출간되었습니다!!”

백초귀장술

찾아온 시간만 가지고 애 왔는지
무슨 일로 왔는지
상대방 마음을 꿰뚫어 보는 법

두 번째 백초 스님의

- * 귀장술12신공으로 신년운세 보는 법
- * 귀장술12신공의 직장취업운 보는 법
- * 귀장술12신공의 시험합격운 보는 법
- * 귀장술12신공의 매매·이동운 보는 법
- * 매물로 내놓으면 매매가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 * 언제쯤 매매가 성사 되겠는가?
- * 귀장술12신공의 금전재물운 보는 법
- * 받을 돈이 있는데 받을 수 있겠는가?
- * 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벌겠습니까?
- * 사업을 확장할까? 다른 사업으로 바꿀까?
- * 동업을 해도 괜찮을까?
- * 부부인연(因緣)에 건 액운(厄運)암시록
- * 집안 동토귀신 알아내는 법
- * 자녀액운 차귀탈 정단법
- * 취직시험·승진시험의 합격 판단법
- * 선거 후보당선 벼슬하는 여부 판단법
- * 관청·공무원 빈자리 입관가능 여부
- * 소송·관재사의 승패 판단법
- * 보고싶은사람, 기다리는 사람 소식가능성
- * 가출자가 언제쯤 집에 돌아올까?
- * 잃어버린 분실물 위치 추정법
- * 도주·도망간 사람이 어느쪽으로 갔을까?
- * 12신공 숨어있는 조상원귀법
- * 12신공에 암장된 악령귀신
- * 귀장술(歸藏術)로 보는 前生(前世)투시법
- * 前生의 夫婦(夫婦)인연 원침살이 現生(現生)에 미치는 현상
- * 귀장술(歸藏術)로 뽑은 빙의(빙의)차귀신론
- * 귀장술(歸藏術)로 뽑은 사후(死後)환생 귀신(귀신)작해론
- * 산소·무덤에 관해서 [음택법]
- * 무덤안 유골의 현재상태 알아내는 법

글·백초스님
하권/720면/정가 120,000

百超律歷學堂

입금 계좌 | 농협 023-02-500940 임현주
신한 010-6413-4443 임현주

비법전수증

(02) 3667-4446
010-3813-4443